



es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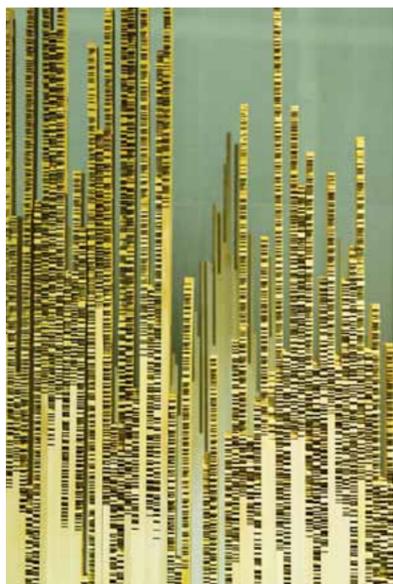
13일까지 비엔날레 전시관

지난달 15일 비엔날레 전시관에서 개막한 2015 광주 디자인비엔날레가 폐막을 10여일 앞두고 있다. '디자인과 더불어 신명'을 주제로 오는 13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는 4개의 테마로 나뉘어 미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일본 등 100여 개 국가에서 300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광주 브랜딩'전은 광주지역 중소기업과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이 협업작품을 전시한다. '아시아 디자인 허브'전에서는 한·중·일의 디자인 특성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또 '광주문화디자인숍', '뉴이탈리안 디자인 2.0', '함블 마스터피스' 등도 만나볼 수 있다. 이외에도 전시관 광장에는 일본 건축가 도요 이토의 공간조형물 '윤무'가 설치돼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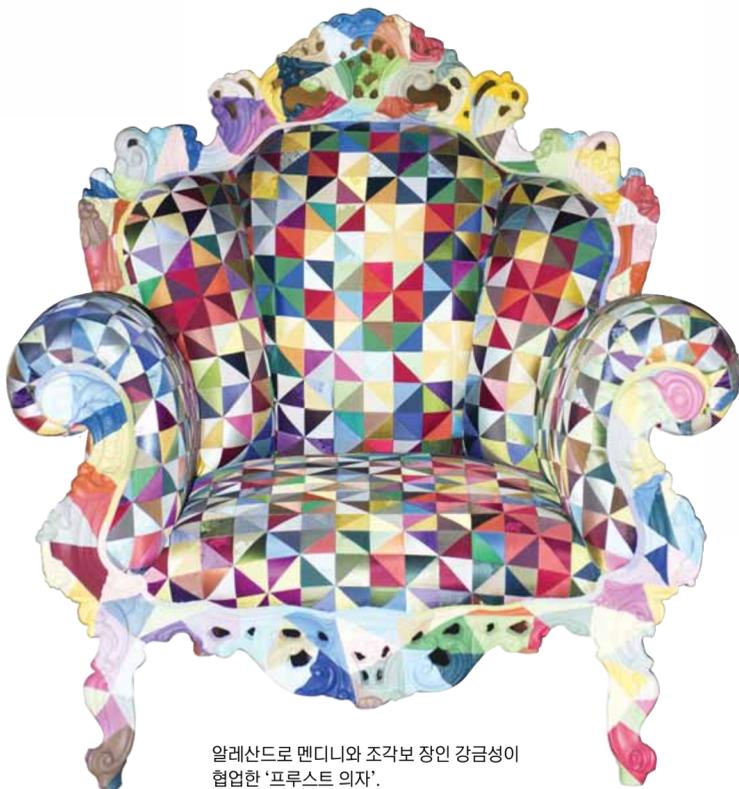


이탈리아 스테파노 지오반노니가 디자인하고 지역업체 인스나인이 제작한 도자기 세트 '미니맨' 시리즈.

송승용 작 '탁가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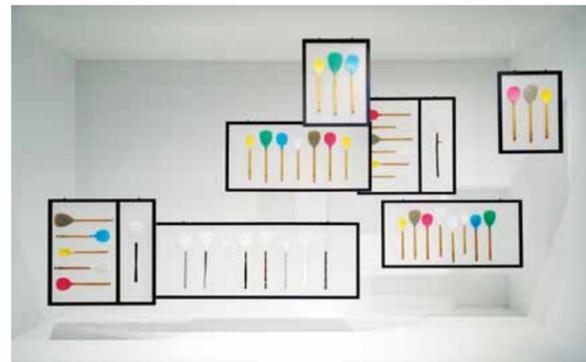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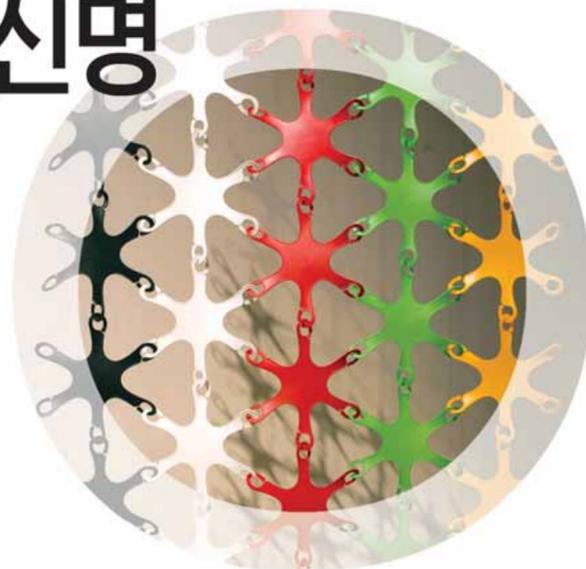


'아시아허브전'에 설치된 하시모토 카즈유키 작 '코 안'.



알레산드로 멘디니와 조각보 장인 강금성이 협업한 '프루스트 의자'.

신명



한경하·광주금형 협업작 '자연의 풍경을 담은 키친툴'.



세계적 디자이너들과 지역 업체가 협업한 제품이 전시된 '광주브랜딩'전을 관람객들이 살펴보고 있다.



'뉴이탈리안 디자인 2.0'전에 전시된 스킨에파티 루카 작 '서클'.



비엔날레 광장에 설치된 도요 이토 작 '윤무'.

이태리 가구 전문점 100% MADE IN ITALY

소파 식탁 보상판매

타사상품 포함 www.hong79.com ☎ 1899-0240 11월 28일까지

NAVER 홍스페이스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58-15(동구청 옆) **홍스페이스** 가구빌딩

SINCE 1990